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4년 2월

교육학석사(무용교육)학위논문

지역소멸시대에 학교 운동부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전라남도 지역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무용교육전공

이 조 은

지역소멸시대에 학교 운동부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전라남도 지역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School Movement Department in
the Age of Regional Extinction
(Centered in Jeollanam-do)

2024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무용교육전공

이 조 은

지역소멸시대에 학교 운동부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전라남도 지역 중심으로)

지도교수 : 김 현 우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무용교육) 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무 용 교 육 전 공

이 조 은

이조은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정 재 환 (인)

위원 김 현 우 (인)

위원 이 숙 영 (인)

2023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제 1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문제 4
3. 선행연구의 검토 4
4. 연구의 제한점 7

제 2장. 인구변화와 학령인구의 관계분석 8

1. 인구감소와 전남지역의 영향 9
2. 학령인구 변화와 전남지역 추이 13
 - 가. 학령인구의 변화 13
 - 나. 전남지역 각급 학교 학생 수 변화 15
 - 다. 학령인구 감소와 전남지역 학교 운동부의 영향 17

제 3장. 전남지역 학교 운동부 현황과 변화 19

1. 전남지역 학교와 학교 운동부 변천사 19
 - 가. 전남지역 각급 학교 운동부 창단 현황 21
 - 나. 전남지역 공립/사립학교의 운동부 구분과 연도별 종목현황 23

제 4장. 연구 방법 26

1. 연구 대상 26
2. 조사 도구 27

3. 자료수집 27
4. 자료 분석 28

제 5장. 학교 운동부의 발전 방향 29

1. 인구 감소 추세와 전남지역의 영향 29
2. 인구 감소 위기 속의 전남지역 학교운동부 현황과 변화 32
3. 전남지역 학교 운동부 해체 현황 34
4. 전남지역 학교 운동부 해체 사유 35
5. 학교 운동부의 우려와 전망 37
6. 학교 운동부의 해체 원인과 미래 발전 방향을 위한 고찰 39

제 6장. 결 론 45

1. 요약 및 결론 45
 2. 제언 47
- 참고문헌 48

표 목 차

- 표 1. 한국과 OECD 회원국가 출산율 비교 11
- 표 2. 인터뷰 연구 대상자 및 종목 27
- 표 3. 학교 운동부 실태조사 35

그 립 목 차

- 그림 1. 국내 총인구 추이 12
- 그림 2. 전국 학령인구 현황 14
- 그림 3. 전남지역 각급 학교 학생 수 변화 16
- 그림 4. 1981년과 2023년의 학생 수 비교 17
- 그림 5. 농어촌 지역 폐교 비교 20
- 그림 6. 연구 순서 28
- 그림 7. 전남 인구감소 지역 30
- 그림 8. 전남지역 학교 운동부 해체 현황 1990년 이후 33
- 그림 9. 학교 운동부들의 해체 사유 36
- 그림 10. 학교 운동부에 대한 의견(학생) 41

ABSTRACT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School Movement Department in the Age of Regional Extinction (Centered in Jeollanam-do)

Lee, Jo-Eun

Adviser : Prof. Kim, Hyun-Woo

Major in Danc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school sports department has served as the root of Korea's sports development for as long as its history. This study provides basic data to examin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population decline, school-age population, and school sports department, and based on literature review methods, interviews, media article analysis, historical interpretation and technology methods, the current status and change of school sports department in Jeonnam, and the decline and development of school sports department in Jeonnam. As a result of this examination, it was found that the actual population and the decreas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referred to as the era of regional extinction, are closely related to the rise and fall of the school sports department.

Since 1980, when Korea's population decline began, the school-age population across the country has also turned downward, and the pace of

decline in Jeollanam-do, which is mostly rural and fishing areas, has progressed faster. Jeonnam's population fell from 2.84 million in 1986 to 1.81 million in 2022. The number of students in Jeollanam-do, which peaked at 1.2 million as the population decreased, fell to 740,000 in 1987, and even broke the 200,000 mark to 198,262 in 2022. A number of schools closed because children's cries in rural villages were cut off and there were no freshmen. In the five years since 2018, 193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have disappeared in 17 metropolitan cities nationwide, and during this period, Jeonnam had the largest number in the country with 34 schools.

The number of students in Jeollanam-do, which was over 1.2 million in 1981, has fallen to 190,000 since 2022, and the school's athletic department has also faced a crisis. Since the 1990s, 112 school sports teams in 94 schools in Jeollanam-do have been disbanded. Of the 94 schools, 23 were private and the rest were public schools. Regardless of popular or unpopular events, school sports teams in various sports are suffering from dissolution. Among the reasons for the dissolution of the school sports department in South Jeolla Province in 94 schools and 121 sports that have been disbanded since 1990, the difficulty of securing student athletes accounted for 67.8%, followed by a lack of leaders and conversion to public sports clubs. The fact that it was difficult to secure student athletes in two out of three school sports departments in Jeollanam-do, which were disbanded, proves that it is closely related to the declin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The crisis of the school sports department is a regional crisis, and furthermore, the crisis of Korean sports. With so-called "small schools"

with fewer than 60 students, the outlook is inevitably darker. Given that the decline and absence of the school sports department in the absence of an alternative can shake the foundation of Korean sports as a whole, the government, local communities, education authorities, sports circles, and residents should work together to come up with various systems and support measures for the future of the school sports department.

제 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세계적으로 스포츠는 삶 속에서 떼어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다양한 경기들을 통해서 국가와 국가가 소통하고 국가의 이름을 알리기도 한다. 때로는 스포츠에 깊게 빠진 국민들을 위로하기도 했고, 감동을 주기도 했다. 국격(國格)을 높인 성과로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안겨줬다. 스포츠 스타들이 몸짓과 표정 하나에도 환호성이 터지며 그 환호성으로 인해 애국심이 생기기도 한다. 또한 스포츠는 몸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두기도 하고 정신적 건강의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 스포츠를 하는 경우도 많다. 스포츠를 함으로써 긍정적인 에너지가 분출되며 사회성과 자신감 등 밝은 모습으로 채워지게 된다.

학생들이 스포츠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학교에 학교 운동부가 설치되어 능력을 표출하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학교 운동부는 학생들에게 스포츠의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고, 본인에게 맞는 스포츠를 선택하여 뚜렷한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스포츠로 인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표출하며 학생들의 내면에 있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뀔 수 있게 되며, 단체 생활로 인해서 협동심과 자신감도 생기게 된다. 학교 운동부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며 먼 훗날 애교심과 애향심을 속 깊이 갖게 된다. 학교 운동부는 학생들에게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지역의 상징으로 나아가 지역홍보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스포츠의 첫 발판이 된다고 보고 있는 학교 운동부는 한국체육의 뿌리 역할을 한다.

학교 운동부는 단지 소속된 선수와 지도자, 그리고 학부모들만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이다.(이대형, 2012) 한국체육의 핵심으로 평가받았던 학교 운동부가 인구 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리면서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 최근에는 학교 운동부 지원자를 모집하는 경우도 적다고 보며 특히 다수의 인원으로 진행되는 스포츠들은 개인 스

포츠에 비해서 감소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본다. 학생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스포츠만 인기를 얻고 있어 유지되는 경우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스포츠들은 끝내 오래가지 못하고 사라지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특히 수도권에 비해 지역에 있는 학교들의 학생 수가 점차 감소해 가면서 학교 운동부에 대한 타격은 커지고 있다.

학교 운동부는 학교 내의 운동 경기부를 말하는 것으로 학교 간 경기를 통해 학교의 명예를 높이고 재학생과 동문들과의 연결고리로서의 역할과 함께 애교심과 모교의 자부심을 갖게 하는 교육적 효과와 함께 학교의 이름을 전국에 알리는 홍보대사의 역할도 한다.(김규혁, 2011)

지역 소멸 위기 시대, 지역의 인구들이 점차 줄어들면서 65세 이상의 고령의 많이 차지하는 것을 말하고, 지금의 한국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출산율로 인해 인구 감소는 학교에 들어가는 학령인구 감소로 이어지면서 학교 운동부는 역사적으로 가장 심각한 위협을 마주하게 됐다. 1972년 전교생 60여 명이던 전남 신안군의 외딴 섬마을 초등학교 분교 농구부 학생들이 전국소년체전에서 일궈낸 농구 결승 진출 신화는 이제 재현되기 어려운 현실이 돼버렸다.

한국의 인구 감소 추세는 1980년 대 중반 이후 뚜렷하다. 1960년 6.10명이었던 출산율은 1980년 2.82명으로 1990년에는 1.57명, 2018년에는 출산율이 조사 이후 처음으로 1명 아래인 0.98명까지 하락했고, 2022년에는 0.78명까지 떨어졌다.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앞으로 심각한 출산율을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줄어들면서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의 비율이 20세~35세의 인구 비율보다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예측할 수 있으며 10년 뒤에는 전라남도의 22개의 시·군이 아닌 10개 이하의 시·군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상상해 볼 수 있다.

산업화와 더불어 한차례 대규모 인구 유출을 겪었던 전남은 농어촌 지역 많은 지역 특성 때문에 인구 감소 속도가 더욱 빠르다. 1986년 284만 명이었던 전남의 인구는 2022년에는 181만 명까지 떨어졌다. 인구 감소는 학생 수 감소로 이어져 1981년 120만 5,43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급격하게 하향하고 있고, 2023년에는 19만 4,173명까지 떨어졌다. 저출생과 수도권 이동으로 인해 지역에 점점 인구수는 줄어들고 지역 활성화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의 비중은 고령화 사회로 되었으며 학생들과 젊은 층의

비중은 그에 비해 줄어들고 있다.

학생 수 감소로 문을 닫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으며, 학생 선수들을 확보하지 못한 학교 운동부들이 해체의 길로 물리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지역소멸 중 가장 심각한 전남은 예전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전남지역 초등학교의 절반 이상이 전교생 60명 이하인 작은 학교라는 점은 학교 운동부의 미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학생 수로 인해 학교 운동부의 비인기 종목들은 점차 사라지게 되며 비인기 종목을 찾는 학생들은 그 종목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또는 그 종목을 찾지 못하면 본인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전공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지금처럼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줄어들게 되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찾을 것이며 중학교에서는 자신에게 맞는 고등학교를 찾게 될 것이다. 학생들에게 맞는 학교들을 찾기 위해서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도 예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체육을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이 학교 운동부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를 찾지 못하면 자신의 전공을 포기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인구 감소는 현재 상황에 많은 영역에 스며들었으며 지금 당장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앞으로 먼 미래에 큰 심각성을 가져온다고 예상할 수 있다.

앞으로 학교 운동부의 스포츠 종목들이 다양성도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학교 운동장 역시 갈수록 썰렁해지게 되고 학교 체육마저 공교육보다 사교육을 들여다보는 관심이 커지는 현실에서 학교 운동부의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다. 먼 미래로 보았을 때, 한국 체육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마저도 붕괴하고 있다. 학교 운동부의 쇠퇴를 예방하기 위해 관심을 갖고 남아있는 학교 운동부의 작은 소리까지 들어주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인구 감소에 따라 전남지역의 학령인구 변화 속에 학교 운동부의 현황과 변천사를 세부적으로 고찰하고 인구 감소와 학령인구, 그리고 학교 운동부와와의 관계분석을 살펴보고 위기에 처한 학교 운동부의 미래의 길을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하는데 필요성을 두고 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학령인구와 전남 지역 학교 운동부 성쇠(盛衰)의 인과성을 살펴보고 인과성 안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다양한 자료와 선행 연구물들의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 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변화와 학령인구 사이에는 어떤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는가?

둘째, 전남지역 학교 운동부는 어떤 상황에 처해있고,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셋째, 인구와 학령인구 감소 속에 빚어진 학교 운동부의 쇠락은 어떤 모습이고, 어떤 발전 방향이 있는가?

3. 선행연구의 검토

오랜 기간 이어져온 한국 체육 역사에서는 크고 작은 고비들이 있었지만 지역소멸 위기로 인해 인구 절벽 또는 인구 감소로 표현되고 지금의 상황은 이전과는 전혀 다르며 본질적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와 현대 학교 체육에 관한 연구는 학교 운동부의 총체적인 문제점이나 개선 방향, 역사적 의미를 다루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고 시대적 현안 과제인 인구 감소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운동부의 생존 전략 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비록 특정 지역이긴 하지만 학교 운동부와 인구 감소 문제의 관계분석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언급하고 다가올 미래에 학교 운동부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학교 운동부에 대해 다룬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했다.

교육의 장으로서 학교 운동부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탐색연구를 보면 이대형(2012)은 한국 엘리트스포츠의 기초가 되는 학교 운동부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해 학생 선수들에 대한 학습권의 보장과 인권 유린 사태 예방, 학생으로서의 권리 보장 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학교 운동부가 단지 소속된 선수와 지도자, 그리고 학부모들의 소유물이 아니고 운동부에 지원되는 경비가 국민 세금에서 비롯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학생선수과 지도자, 학부모 모두가 보다 높은 도덕성을 갖추고 이런 바탕 위에 경기장에서 운동 기량이 발휘될 수 있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이대형, 2012)

전라북도 학교 운동부의 전문스포츠클럽 전환 사례를 연구한 양원·유경재·이대웅·조현철·김현륜·신동현·유성완(2022)은 전북의 학교 운동부의 전문스포츠클럽 전환 사례를 바탕으로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단위학교로 구분해 기관별 역할을 제시했다. 기관별 역할을 통해 학교, 지역, 국가대표로 연계가 가능하고 스포츠로 행복해지고 스포츠로 자신의 잠재력을 키울 수 있게 되며, 운동과 학업을 병행해 자신의 소명을 찾아갈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양원·유경재·이대웅·조현철·김현륜·신동현·유성완, 2022)

학교 운동부 운영 및 실태와 개선방향을 연구한 김준식(2021)은 학교 운동부내 학교폭력과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 과도한 지상주의 탈피, 건강하고 건전한 운동부 문화 조성, 연수와 홍보를 통한 의식 확립, 신속한 수사과 엄중한 처벌, 학교(지도자와 학생), 가정(학부모), 사회(교육청과 연맹)의 노력을 통해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방향이 모색돼야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김준식, 2021)

일본의 학교 운동부 활동의 성립 과정과 교육적 효과 및 만족도를 분석한 서영환(2019)은 일본의 학교 운동부가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의 목적에 의해 필수영역으로 지정해 참여시켰던 것이 현재에 이르러서는 지도하는 교사나 참여시키는 학부모는 물론, 직접 참여하는 학생들까지도 내적으로 조절된 내재적 동기에 의해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교육적 효과나 만족도에서 높이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일본의 학교 운동부 사례를 벤치마킹해 한국의 학교체육 활동의 제도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서영

황, 2019)

강원도 지역 학교 운동부의 형성과 변천사를 연구한 김규혁(2011)은 학교 운동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위한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이보다 선행해야 할 것은 학교 운동부의 본모습을 찾고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김규혁, 2011)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학교스포츠 정책과 운동부 활동의 위기와 개혁 문제를 연구한 김영성(2022)은 학교 운동부의 발전적인 운영 방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가 지역의 운동부 활동에 관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학교 운동부 활동과 운영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침 내지 시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스포츠 향유의 질이 정책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면, 정책의 결과가 중요한 만큼 정책 과정도 긴요하므로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대해 체육계뿐 아니라 국민도 관심을 갖고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김영성, 2022)

이상으로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교육적 차원이나 역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 국내외 체육 정책 역사를 통해 학생 운동부의 현상과 의미를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인구 감소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학교 운동부가 처해 있는 길의 모색 방안을 찾는 데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고 이런 연구 역시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큰 위기를 맞고 있는 학생 운동부의 변화와 생존, 발전을 위해서는 인구 절벽 시대와 관련한 학교 운동부 현실과 처방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급격히 진행 중인 전남지역만을 대상으로 조사와 연구가 진행됐다. 이에 따라 연구에서 나온 결과를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 전국으로 확대해 적용하는 데는 일정 부분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인구 변화와 학령인구의 감소가 학교 운동부의 존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지만 관련 자료를 주로 최근 30년 이내의 수치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인터뷰 조사 역시 표본 수집 등의 한계로 제한적으로 실시해 매우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대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학교 운동부별 구체적인 사례 등은 자료수집의 제한으로 인해 이미 노출돼 있거나 언론 등에 공개된 사실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제 2장. 인구변화와 학령인구의 관계분석

한국의 인구 감소 추세는 뚜렷하다. 최근 20대~30대까지의 비율보다 65세 이상의 비율이 점차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고령화 사회로 이어졌다. 지역에서부터 조금씩 수도권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예상한다. 현재 지방에서의 인구들이 점차 줄어들며 고령의 비율이 대다수이다. 최근 자료들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전라남도 지역과 경상북도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지역소멸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가까이 있는 지역이 소멸되지 않기 위하여 이를 예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하향 징후가 나타난 1980년 대 이후 1990년대를 거쳐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급격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2022년 한국 총인구는 5,169만 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통계청 자료)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도 선명한 하향 곡선을 보이면서 1960년 6.10명이었던 출산율은 1980년 2.82명, 1990년에는 1.57명, 2018년에는 출산율이 조사 이후 처음으로 1명 아래인 0.98명까지 하락하였고 2022년에는 0.78명까지 떨어졌다. 내년과 내후년에는 큰 심각성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22개 시군으로 구성된 전남은 농어업을 주로 하는 특성상 산업화와 더불어 많은 주민이 대도시로 빠져나간 데다 인구 감소가 계속되면서 낙폭을 키워 1986년 284만 명이었던 전남의 인구는 2022년에는 181만 명까지 떨어졌다. 인구가 줄면서 6세부터 21세까지인 학령인구도 크게 줄어들고 있다. 학령인구는 1980년 전국 1,440만 명을 최고로 하락세로 전환한 뒤 2023년에는 725만 9,000명까지 추락했고, 이대로라면 오는 2030년에는 600만 명대도 붕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학령인구의 감소 여파는 폐교 속출로 이어지고 있고, 일선 학교의 운동부의 존폐 위기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2018년 이후 5년 동안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193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사라졌다. 농어촌 지역의 폐교가 더욱 심각해서 전남이 34개교, 경북 30개교, 경남 24개교, 충북 19개 교 등으로 뒤를 이었다.

“..... 인구 감소와 학령인구 감소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본다. 인구가 감소되면서 폐교가 당연하게 일어난다고 본다.....”(전남 ○○중 레슬링 지도교사)

전남지역 학생 수는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매년마다 1백만 명이 넘었지만 1981년 120만 5,43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하향세로 바뀌었고, 1987년 74만 5,388명으로 줄었고, 이후 1993년에는 50 만 명대가 무너졌으며 2009년 29만 7,989명으로 떨어지며 20만 명대로 진입했고, 2022년에는 19만 8,262명으로 20만 명 선마저 깨진 뒤 2023년에는 19만 4,173명을 기록했다.

학교 운동부 학생 선수 확보 문제 등의 요인과 더불어 학령 감소의 큰 산을 넘지 못한 채 1990년대 이후 전남지역 학교 운동부 가운데 초등학교 28개교, 31개 종목, 중학교는 37개교, 43개 종목, 고등학교 29개교, 38개 종목의 운동부가 해체되었다.

1. 인구 감소와 전남지역의 영향

한국에서 지역소멸 중 가장 심각한 전남은 총 16곳이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다. 16 곳에는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이 있으며 이곳에서의 인구 감소, 학생 수 감소 등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한국의 인구는 광복 이후 높은 출산율과 함께 증가세를 보이거나 1980년 대 이후 하향 징후가 나타난 뒤 1990년대를 거쳐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급속히 줄어드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한국 총인구는 5,169만 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조사돼 한 해 전인 2021년보다 또다시 4만 6,000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48년 정부가 수립된 뒤 처음으로 총인구가 줄었던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인구 성장률이 역성장을 한 것이다.

우선 출산율의 변화를 보면 인구 감소 추세의 심각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를 나타내는 합계 출산율도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한국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1960년 6.10명이었고 10년 뒤인 1970년에는 4.53명이었다. 여성 1명이 살아가는 동안 4명에서 6명까지 자녀를 낳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회 전 분야에서 너무나 높은 출산율을 걱정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처럼 높은 출산율은 70년대를 지나면서 1980년에는 2.82명으로 떨어졌고 1985년에는 1.66명, 1990년에는 1.57명, 1995년에는 1.63명으로 1.5대 전후로 하락한 뒤 2000년에 들어서면서 1.47명으로 더욱 낮아졌다. 출산율의 감소 추세는 최근 들어 더욱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 2010년 대 중반을 넘긴 2018년에는 출산율이 조사 이후 처음으로 1명 아래인 0.98명까지 하락했고, 2019년에는 0.92명, 2020년에는 0.84명, 2021년에는 0.81명, 2022년에는 0.78명을 기록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출산율은 지금과 같이 급격하게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과 같은 상황을 계속 이어간다면 3년 후에는 0.5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볼 수 있고 10년 후에는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다음 표 1. 은 한국과 OECD 회원 국가 출산율 비교이며 심각성을 확연하게 볼 수 있다.

표 1. <한국과 OECD 회원국가 출산율 비교>

구분	1960년	2000년	2019년	2020년
한국	6.10명	1.47명	0.92명	0.84명
OECD 회원국	3,30명	1.83명	1.62명	1.59명

(박명림 연세대 교수 언론기고문(2023) 재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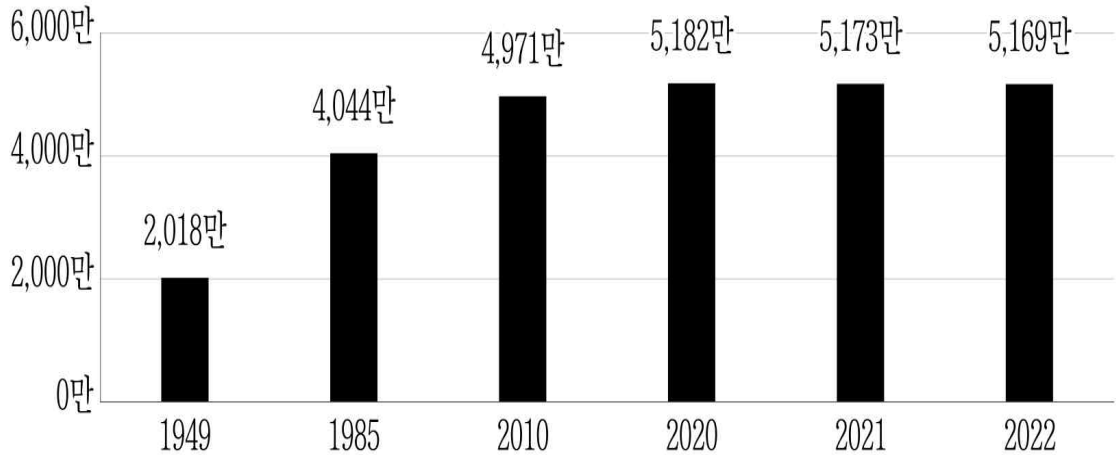
출산율은 줄고 인구의 고령화가 겹치면서 0세부터 14세인 유소년 인구는 60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00만 명을 넘어섰다. 4인 가구 1세대라는 기준도 옛말처럼 느껴져 혼자 사는 가구 수도 750만 가구를 돌파했고 앞으로도 점차 늘어날 것이다. 혼자 사는 가구가 많아지면서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하지 않는 부부가 점차 많아지는 추세이다.

합계 출산율이 선행적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한국의 인구증가율은 2020년까지는 조금 씩이라도 플러스 성장을 해왔고 2021년에는 급기야 마이너스 성장에 이어 2년 연속 뒷걸음질을 계속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2030년, 2040년에는 심각한 상황을 볼 것이라고 예상하며 앞으로 혼자 사는 20대 사람들과 노년층 역시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거주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 수도 4,994만 명으로 2018년 이후 4년 만에 5,000만 명 아래로 주저앉아 버렸고 앞으로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인구수의 감소가 더욱 무겁게 다가오는 건 유소년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의 가속화를 극명하게 동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 자료를 보면 20~30세의 비율보다 65세 이상의 전반적으로 비율이 차지를 했으며 수치로 보았을 때, 전체의 14%를 넘어섰다. 앞으로 고령사회를 지나 2년 뒤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출생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유소년 인구와 함께 1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연령인구 비율도 축소되고 있고 2022년 전체 인구에서 71.1%를 차지하던 활동 가능한 연령의 인구는 2017년 73.1%와 비교해 2% 포인트 넘게 줄었다.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총인구의 변화를 수치로만 본다면 깊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기에 조금 더 뚜렷한 차이를 한눈에 보기 위해서 통계청 자료를 재편집하였다.

다음 그림 1. 은 총인구 추이 자료이며 단위는 만 명으로 되어있다.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재편집한 그림이다.

그림 1. 국내 총인구 추이(자료: 통계청)_재편집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등 5 개시와 17개 군으로 구성된 전남도는 산업화 이전에 넓은 농토와 해안을 거느린 광역시 지방자치단체로 많은 인구들이 밀집한 곳이었지만 산업화와 더불어 농업인구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서울 등 대도시로 대거 이주해 간 데다 인구 감소가 계속되는 상황이 더해지면서 주민 수가 해가 갈수록 낙폭을 키워갔다.

서울 아시안게임이 열렸던 1986년 284만 명이었던 전남의 인구는 20년 만에 200만 명이 무너졌고 하락 추세가 이어져 2022년에는 181만 명까지 떨어졌다. 고령화도 심각해서 이미 전남지역 22개 시군이 고령 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상태여서 2022년 전국 고령자 1인 가구도 전남이 전국의 1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 귀촌을 포함한 전남도와 22개 시군의 다양한 인구 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는 꺾이지 않고 2020년 185만 명, 2021년 183만 명, 2022년 181만 명으로 인구 감소의 물줄기는 막을 수 없는 대세가 되고 말았다.

2. 학령인구 변화와 전남지역 추이

인구 감소는 지역의 위기를 넘어 국가 전체의 위기로 인식되고 있다. 출생아가 없어 울음소리가 끊겼다는 농어촌 마을들이 속출하고, 아이들이 없는 지역의 학교는 신입생이 없어 학교 문을 닫아야 하는 악순환이 공동체 전체로 번지고 있다. 하향 곡선의 기울기는 해가 갈수록 가파르게 진행돼 2023년 전국 17개 시도 전체 학령인구는 725만 명대로 떨어졌다. 1980년 1,440만 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 절반 밑으로 급락했고 내리막길의 끝은 보이지 않고 있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파도는 교정에도 들이닥치면서 2018년 이후에만 5년 동안 전국적으로 해마다 평균 38곳이 넘는 학교들이 문을 닫았다.

일자리를 찾아 젊은이들이 떠나고 그나마 남은 주민들의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농어촌 지역의 위기는 더욱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농어촌이 산재한 전남지역의 학생 수는 1981년 120만 5,437명으로 최고점에 다다른 뒤 지지대를 부러뜨리고 하락을 거듭해 2023년에는 19만 4,173명까지 떨어졌다. 학교가 문을 닫는 상황에서 학교 운동부의 존폐도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 선발할 선수가 원천적으로 부족한 데다 지도자 확보의 어려움, 재원 마련의 부담도 가중되면서 종목에 관계없이 해체되는 사례가 늘었고 1990년 이후 전남지역 94개 초, 중, 고등학교에서 112개 종목의 운동부가 자취를 감췄다.

가. 학령인구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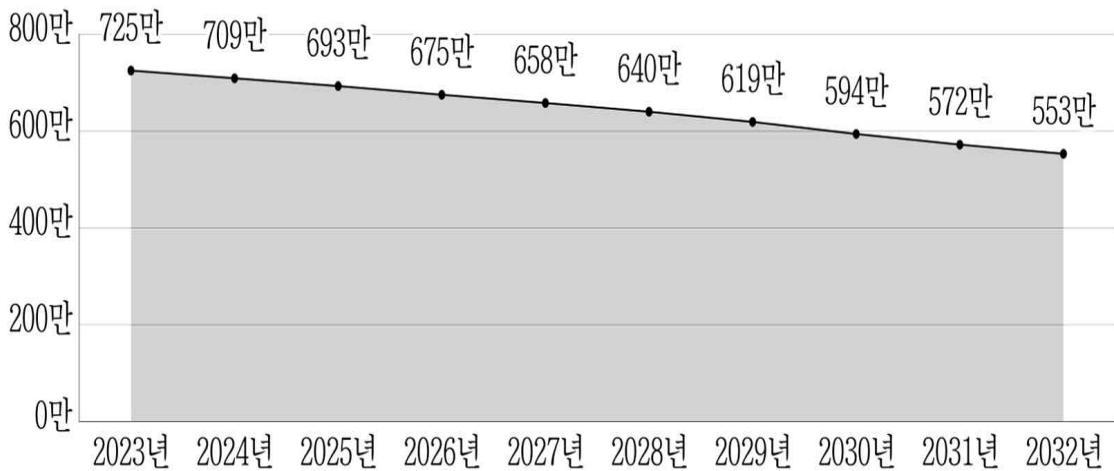
인구의 감소는 자연스럽게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을 뜻하는 학령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세대는 고령화되면서 학령인구는 감소 추세 역시 제어되지 않고 낙하 기구처럼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각급 학교 진학 대상으로 6세부터 21세까지인 학령인구는 1980년 전국 1,440만 명이 분기점을 이룬 뒤 내리막길을 타

고 흘러 2023년에는 725만 9,000명까지 떨어졌다. 반세기가 되기 전에 절반 아래로 줄어들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다가올 2025년에는 700만 명대가 깨지고, 2030년에는 600만 명대도 붕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음은 그림 2. 는 전국 학령인구(6~12세) 현황으로 단위는 만 명으로 되어있으며 2020년 발표 기준으로 되어있다.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재편집한 그림이다.

그림 2. 전국 학령인구 현황(자료: 통계청)_재편집

● 전국 학령인구(6~12세) 현황



줄어드는 학령인구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건 당장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해마다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3년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전국에서 145곳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23. 국회 교육위원회 17개 시도교육청 제출 자료) 이 같은 현상은 한 해 전인 2022년 114개교보다 27.2%인 31개교가 늘어난 수치이다. 시도별로는 경북이 32개로 가장 많았고 전남 30개교, 강원·전북 20개교, 경남 18개교, 충남 9개교, 충북 8개교, 경기 5개교, 인천·부산·제주 1개교 순이었다. 신입생이 있다 하더라도 전국 초등학교는 6,163곳으로 이 가운데 25%가량의 학교의 신입생이 10명도

되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생 수가 없어 사라질 위기에 놓인 학교도 늘고 있다. 전남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학생이 없어 휴교 중인 초등학교가 17곳, 유치원은 36곳으로 집계됐다. 학생이 없어 휴교가 3년 동안 이어지면 어쩔 수 없이 폐교 수순을 밟고 있다. 실제로 문을 닫는 학교들은 해마다 속출하고 있다. 2018년 이후 5년 동안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193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사라졌다. 서울 등 수도권도 예외는 아니지만 농어촌 지역의 폐교가 심각한 것은 당연하다. 이 기간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34개교, 경북 30개교, 경남 24개교, 충북 19개 교 등이 역사의 뒤안길로 자취를 감춘 것을 보면 지역별 편차를 뒷받침하고 있다.

나. 전남지역 각급 학교 학생 수 변화

전남지역 학생 수도 한국전쟁 이후 산업화에 따른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로 이어지면서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1백만 명을 넘는 10여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내리막길을 걸었다. 전남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 수는 1965년 81만2,367명이었다.

각급 학교 학생 수는 꾸준히 늘어 1970년 들어서는 학생 수 100만 명 시대를 맞았다. 1970년에는 1백2만 2,511명, 1971년에는 1백6만 1,965명, 1972년에는 1백8만 6,856명에 이어 1973년에는 처음으로 110만 명을 돌파했다. 1973년 1백10만 1,481명으로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였고 1981년 120만 5,437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1981년의 학생 수를 각급 학교별로 구분하면 유치원생 1만 8,112명, 초등학생이 67만 1,816명, 중학생이 31만 9,342명, 고등학생이 19만 6,167명으로 초등학생만 1년 전 70만 1,320명에서 약 3만 명 줄었을 뿐 나머지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수가 최고점을 찍으면서 전남지역 전체 학생 수가 최고를 기록했다. 1981년 정점을 찍은 전남지역 학생 수는 1982년에는 1백18만 3,618명, 1983년에는 1백14만 6,967명, 1984년에는 1백10만 8,850명, 1985년에는 1백7만 9,849명, 1986년에는 1백5만 6,107명으로 1백만 명 시대가 마감되었고 1987년부터 급격히 하락 추세로 전환했다.

그림 3. 전남지역 각급 학교 학생 수 변화(자료: 전남도 교육청)_재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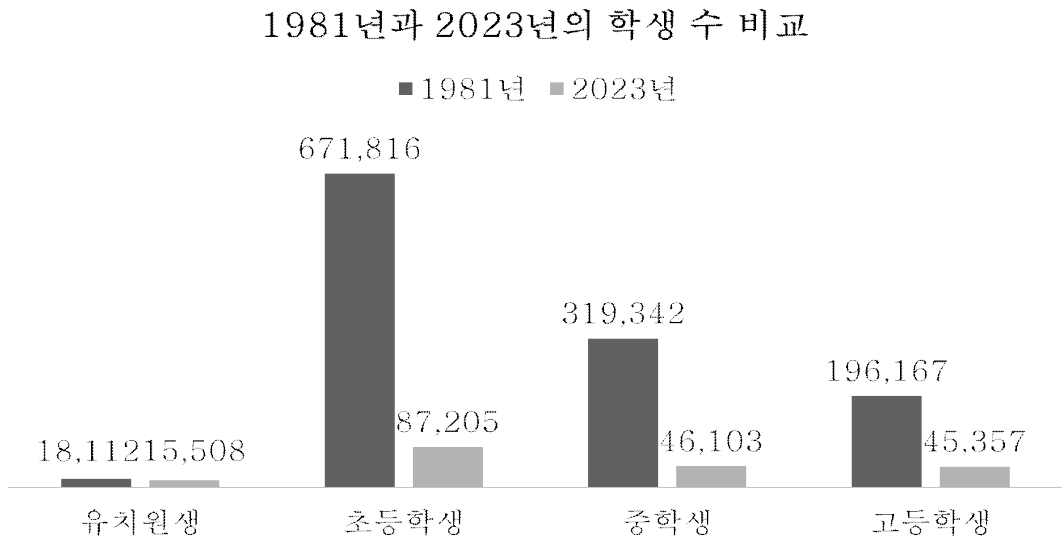
1백만 명이 넘는 전남지역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생 수는 1987년에는 74만 5,388명으로 한해 전보다 31만 명 정도 줄었다. 1980년 후반부터 빠르게 진행된 학생 수 감소에 따라 1991년에는 처음으로 60만 명대가 붕괴돼 55만 6,949명으로 줄었고, 1993년에는 50만 명대가 무너진 48만 7,754명으로, 1998년에는 39만 1,397명으로 30만 명대로 떨어졌다. 2000년 대 들어 어렵게 유지돼 오던 전남지역의 학생 수는 30만 명대 시대도 2009년 29만 7,989명으로 떨어지며 20만 명대로 진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는 멈추지 않았고 2022년에는 19만 8,262명으로 20만 명 선마저 지킬 수 없었고 2023년에는 19만 4,173명으로 다시 한해 전보다 4천 명 넘게 줄었다. 2023년 전남지역 학생 수를 보면 유치원생 1만 5,508명, 초등학생 8만 7,205명, 중학생 4만 6,103명, 고등학생 4만 5,357명이었다.

학생 수 120만 명이 넘었던 1981년과 비교하면 유치원생은 1만 8,112명에서 2,604명으로 초등학생은 67만 1,816명에서 58만 4,611명으로 중학생은 31만 9,342명에서 27만 3,239명으로 그리고 고등학생은 19만 6,167명에서 15만 810명이 감소했다. 점차 크게

학생 수는 떨어지고 있으며 갈수록 좋아지는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더 심각해진다면 사회에 젊은 연령층보다 60대 이상의 연령층이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그만큼 학교는 큰 심각성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이제는 농어촌이 존재하는 지역만 걱정하는 것이 아닌 머지않아 수도권도 직접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다음 그림 4.은 1981년과 2023년의 학생 수를 확연한 차이를 보기위한 그래프이며, 위에 글과 같이 수치로만 보았을 때와 다르게 큰 차이를 느낄 수 있다.

그림 4. 1981년과 2023년의 학생 수 비교(자료: 전남도 교육청)_재편집



다. 학령인구 감소와 전남지역 학교 운동부의 영향

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학령인구도 하향세를 보이면서 전남지역은 문을 닫는 학교가 늘고 학교 운동부 역시 1990년대 이후 선수 인원 부족에 운동부 운영에 수반되는 예산 마련이 어려워지고,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지도자 확보까지 어려워지면서 사라지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해체된 전남지역 학교 운동부의 경우 초등학교는

28개교, 31개 종목에 이르고 중학교는 37개교, 43개 종목의 운동부가 없어졌으며, 고등학교는 29개교, 38개 종목의 운동부가 자취를 감췄다. 종목별로는 초등학교는 축구 8개교, 수영 4개교, 육상 3개교, 야구 1개교 등이며, 중학교는 축구 4개교, 수영 4개교, 정구 4개교, 핸드볼 3개교, 태권도 3개교 순이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축구 2개교, 수영 3개교, 탁구 3개교, 카누 3개교, 농구 3개교, 볼링 3개교 등으로 이루어졌다. 흔히 불리는 인기 종목 또는 비인기 종목에 관계없이 다양한 종목이 사라지며 학교 운동부가 해체라는 아픔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3장. 전남지역 학교 운동부 현황과 변화

1. 전남지역 학교와 학교 운동부 변천사

한국의 인구 감소 추세는 뚜렷하다. 하향 징후가 나타난 1980년 대 이후 1990년대를 거쳐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급격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2022년 한국 총인구는 5,169만 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통계청 자료).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도 선명한 하향 곡선을 보이면서 1960년 6.10명이었던 출산율은 1980년 2.82명, 1990년에는 1.57명, 2018년에는 출산율이 조사 이후 처음으로 1명 아래인 0.98명까지 하락했고, 2022년에는 0.78명까지 떨어졌다.

22개 시군으로 구성된 전남은 농어업을 주로 하는 특성상 산업화와 더불어 많은 주민이 대도시로 빠져나간 데다 인구 감소가 계속되면서 낙폭을 키워 1986년 284만 명이었던 전남의 인구는 2022년에는 181만 명까지 떨어졌다. 인구가 줄면서 6세부터 21세 까지인 학령인구도 크게 줄어들고 있다. 학령인구는 1980년 전국 1,440만 명을 최고로 하락세로 전환한 뒤 2023년에는 725만 9,000명까지 추락하였고, 이대로라면 오는 2030년에는 600만 명대도 붕괴될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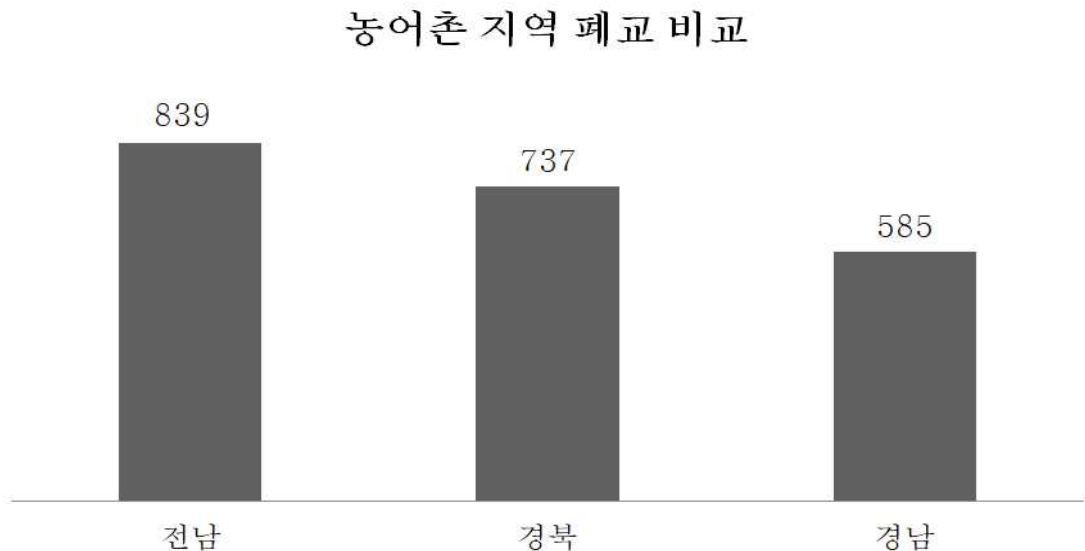
학령인구 감소 여파는 폐교 속출로 이어지고 있고, 일선 학교의 운동부의 존폐 위기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2018년 이후 5년 동안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193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사라졌다. 농어촌 지역의 폐교가 더욱 심각해서 전남이 34개교, 경북 30개교, 경남 24개교, 충북 19개 교 등으로 뒤를 이었다.

전남지역 학생 수는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매년마다 1백만 명이 넘었지만 1981년 120만 5,43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하향세로 바뀌었고, 1987년 74만 5,388명으로 줄었고, 이후 1993년에는 50만 명대가 무너졌으며 2009년 29만 7,989명으로 떨어지며 20만 명대로 진입했고, 2022년에는 19만 8,262명으로 20만 명 선마저 깨진 뒤 2023년에는 19만 4,173명을 기록했다.

학교 운동부 역시 운영난 등 또 다른 요인과 더불어 학령 감소의 파고를 넘지 못한 채 1990년대 이후 전남지역 학교 운동부 가운데 초등학교 28개교, 31개 종목, 중학교는 37개교, 43개 종목, 고등학교 29개교, 38개 종목을 운동부가 해체돼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졌다.

1980년 대 중반 이후 빠른 속도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전국적으로 문을 닫는 학교들이 속출하고 있다. 2023년 3월 새 학기를 기준으로 지금까지 교정에서 학생들이 소리가 들리지 않는 폐교는 3,922곳에 이른다. 학생이 없어 문을 닫는 학교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공동체의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을 시작으로 이제는 도시지역으로 번지고 있다. 2,587곳의 폐교 가운데 농어촌 지역이 몰려 있는 전남이 839개로 가장 많고, 경북 737개, 경남 585개로 뒤를 잇고 있다.

그림 5. 농어촌 지역 폐교 비교(자료: 전남도 교육청)_재편집



전남지역의 시군별로 폐교 현황을 들여다보면 14개 읍면이 대부분 섬으로 이뤄진新安郡에서만 84개 학교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역시 도서(島嶼) 지역인 고흥군과 완도

군이 각각 76곳으로 다음을 차지하고, 여수시에서는 72개 학교가 문을 닫았고 해남군에서는 53곳, 진도군 49곳, 나주시 40곳, 영광군 37곳, 곡성군 33곳, 함평군 33곳, 순천시 31곳, 무안군 27곳, 영암군 26곳, 장흥군 26곳, 장성군 25곳, 강진군 24곳, 담양군 19곳, 광양시 17곳, 구례군 12곳, 목포시 5곳으로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폐교가 많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도시 지역도 예외 없이 폐교가 속출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학교들이 문을 닫으면서 2023년 기준으로 전남지역에는 초등학교 429곳, 중학교 249곳, 고등학교 144곳 등 모두 821개의 초, 중, 고등학교가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초등학교의 50% 이상은 전교생 60명 아래인 이른바 작은 학교들이다. 같은 현상이 지속된다면 앞으로는 농어촌 지역뿐만 아니라 대도시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 있고 먼 훗날 대한민국이 흔들릴 것으로 예상된다. 폐교 현황과 같이 학교 운동부 역시 감소했을 것으로 보이며 다음은 현재 학교 운동부의 운영수이다. 학생 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1990년대 이후 해체된 전남지역 학교 운동부는 28개 초등학교에서 31개 종목, 37개 중학교에서 43개 종목, 29개 고등학교에서 38개 종목이다. 2023년 현재 전남지역 학교 운동부는 초등학교의 경우 78곳, 95 종목이며, 중학교는 62곳, 98 종목, 고등학교는 52곳, 80개 종목으로 모두 192개 초, 중, 고등학교에서 273개 종목의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다.

가. 전남지역 각급 학교 운동부 창단 현황

2023년 현재 전남지역에서 운동부를 운영 중인 초, 중, 고등학교는 모두 192개교로 전체 821 학교의 네 곳 중 한 곳 꼴인 23.3%를 차지하고 있다. 운동부는 초등학교의 경우 78개교, 95 종목이며, 중학교는 62개교, 98 종목, 고등학교는 52개교, 80개 종목으로 모두 192개 초, 중, 고등학교에서 273개 종목의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다. 전남지역 821개 초, 중, 고등학교 가운데 23.3%의 학교가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예전에는 학교 운동부가 한때 국가의 건전성과 지역혜택, 국민의 건강성 보장 등과 연결돼 많이 생겨났고 또한 학교 자체적으로도 애교심이 생기는 장점이 있다.....”
(전남 △△중학교 학교 운동부 담당 체육교사)

“..... 학교 운동부가 학교를 대표해 전국체전 등 전국 대회를 참여하기 때문에 학교나 나아가 지역 홍보에도 효과가 있다.....”(전남 ○○고등학교 학교 운동부 감독)

복수의 운동부를 운영 중인 학교를 보면 2개 운동부의 경우 초등학교 9개교,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7개교이다. 3개의 종목을 복수로 운영 중인 곳은 초등학교의 경우 3개교, 중학교는 5개교, 고등학교는 3개교에 이르고 있다. 또한 5개 이상의 운동부를 운영 중인 학교는 초등학교의 경우 한 개교도 없었다. 중학교는 12개 종목을 운영 중인 전남체중 1개교 그리고 고등학교 역시 13개 종목을 운영 중인 전남체고 1개교뿐이다.

창단 연도를 기준으로 보면 1940년대는 고등학교 1개교, 1950년대도 고등학교 1개교, 1960년대에 창단된 학교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1970년대 창단한 학교 운동부는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4개교 그리고 고등학교 4개교이다. 현재 활동 중인 학교 운동부 가운데 1980년대 창단된 학교 운동부는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8개교이며, 1990년대에는 초등학교 17개교, 중학교 22개교, 고등학교 14개교에 해당된다. 2000년대에 창단한 학교 운동부는 초등학교의 경우 38개교, 중학교 31개교, 고등학교 8개교이다. 10년 뒤 2010년대에는 초등학교 21개교, 중학교 23개교, 고등학교는 17개교이며, 그 뒤 10년 후에는 2020년대에 들어서는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가 학교 운동부를 창단한 상태이다. 다만 각급 학교 가운데 일부 학교 운동부는 근거 기록 등의 부재로 창단 연도가 불확실한 곳도 있다.

나. 전남지역 공립/사립학교의 운동부 구분과 연도별 종목 현황

현재 운영 중인 전남지역 각급 학교 운동부 가운데 가장 역사가 깊은 운동부는 1940년대 공립 고등학교에서 창단한 유도 종목 운동부이다. 한국전쟁이 발발했던 1950년대 학교 운동부 역시 공립 고등학교에서 창단했으며 종목은 역도였다. 이후 전남지역 학교 운동부는 1970년대 들어 창단되는데, 공립 초등학교 2개교에서 소프트테니스와 양궁 운동부가 창단하고, 중학교에서는 4개 공립학교에서 야구와 축구 각각 1개 팀과 사격 2개 팀이 출범했으며, 고등학교에서는 4개 공립 고등학교에서 사격과 양궁 1팀 조정 2개 팀이 창단했다.

1980년에도 공립학교 위주의 운동부 창단은 여전했으나 사립학교 운동부가 출현하고 여중과 여고 운동부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눈에 띄는 시기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공립 4개 학교, 사립 1개 학교에서 테니스 1개 팀, 소프트테니스 2개 팀, 축구 1개 팀, 체조 1개 팀이 창단했으며, 중학교에서는 여중 2개교를 포함해 7개교가 태권도, 사격, 씨름, 하키, 양궁, 야구팀을 각각 출범했는데 모두 공립 중학교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여고 2개교를 포함해 8개교에서 축구, 태권도, 씨름, 소프트테니스, 정구, 사격 각각 1개 팀과 하키 2개 팀이 창단했다. 공립 고등학교 6개교와 사립 고등학교 2개교가 운동부를 창단한 것이다.

1990년대에는 1개 사립학교를 포함해 초등학교 17개교에서 5개 축구팀, 2개 야구팀, 3개 수영 팀, 2개 배구 팀, 유도, 롤러, 씨름, 테니스, 소프트테니스, 핸드볼 1개 팀이 각각 운동부를 창단했다. 중학교에서는 여중 1개교를 포함해 22개교가 운동부를 창단했는데 농구 2개 팀, 축구 3개 팀, 역도 2개 팀, 유도, 하키, 배구, 양궁, 수영, 야구, 롤러, 사격, 육상, 배드민턴, 레슬링, 핸드볼, 검도, 조정, 럭비 팀이 각각 1개 팀을 창단해 다양한 종목의 운동부가 출현하고 복수의 운동부를 창단하는 학교가 다수 나오는 시기로 꼽히고 있다. 공립중학교 18개교, 사립중학교 4개교에서 운동부를 창단하였다. 고등학교에서는 여자상업고등학교 1개교와 여고 1개교를 포함해 14개교에서 운동부를 창단했으며, 종목별로 축구 2개 팀, 배드민턴 2개 팀, 배구, 요트, 유도, 씨름, 양궁, 태권도, 육상, 핸드볼, 농구 각각 1개 팀이었다. 공립 고등학교가 13개교, 사립 고등학교가 1개

교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가장 많은 운동부 창단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38개 초등학교에서 육상 12개 팀, 태권도 5개 팀, 탁구 4개 팀, 수영 3개 팀, 배드민턴 3개 팀, 씨름 2개 팀, 유도 2개 팀, 야구 2개 팀, 농구 1개 팀, 롤러 1개 팀, 축구 1개 팀, 정구 1개 팀, 스키 1개 팀, 양궁 1개 팀이었으며, 모두 공립 초등학교에서 창립한 운동부이다. 중학교에서는 여중 1개교를 포함해 31개교에서 태권도 6개 팀, 육상 5개 팀, 양궁 2개 팀, 사격 2개 팀, 탁구 2개 팀, 수영 2개 팀, 테니스 2개 팀, 볼링 2개 팀, 레슬링 2개 팀, 펜싱, 씨름, 카누, 요트, 배드민턴, 자전거, 배구, 복싱, 역도, 체조, 근대 3종, 컬링, 유도 각각 1개 팀이었다. 공립중학교 27개교, 사립중학교 3개교로 복수 운동부를 창단한 학교들도 적지 않았다. 고등학교는 8개교에서 카누 2개 팀, 태권도 2개 팀, 펜싱 2개 팀, 근대 4종, 레슬링 1개 팀, 복싱 1개 팀, 사격 1개 팀, 수영 1개 팀, 양궁 1개 팀, 역도 1개 팀, 육상 1개 팀, 체조 1개 팀, 축구 1개 팀, 세팍타크로 1개 팀이었으며, 여고 1개교와 전남체육고등학교를 포함해 공립 8개교이다. 특히 이 시기에는 각급 학교별로 같은 학교 내 복수 운동부를 포함해 다수의 학교 운동부가 나타나고, 종목 역시 지역별, 학교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같은 종목의 학교 운동부가 다수 출현한 시기이다.

2010년대에는 21개 초등학교에서는 육상 8개 팀, 씨름 3개 팀, 양궁 2개 팀, 태권도 2개 팀, 수영 1개 팀, 테니스 1개 팀, 유도 1개 팀, 볼링 1개 팀, 골프 1개 팀, 핸드볼 1개 팀을 각각 창단했다. 모두 공립 초등학교 운동부이다. 중학교에서는 23개교에서 펜싱 3개 팀, 검도 2개 팀, 야구 2개 팀, 자전거 2개 팀, 볼링 2개 팀, 롤러 1개 팀, 탁구 1개 팀, 수영 1개 팀, 바둑 1개 팀, 복싱 1개 팀, 스키 1개 팀, 씨름 1개 팀, 핸드볼 1개 팀, 골프 1개 팀, 태권도 1개 팀을 창단했다. 공립 중학교 17개교, 사립 4개교이다. 고등학교에서는 17개교에서 탁구 2개 팀, 볼링 2개 팀, 역도 2개 팀, 복싱 1개 팀, 사이클 1개 팀, 펜싱 1개 팀, 레슬링 1개 팀, 육상 1개 팀, 럭비 1개 팀, 농구 1개 팀, 요트 1개 팀, 배드민턴 1개 팀, 바둑 1개 팀, 롤러 1개 팀을 창단했고, 공립 고등학교 14개교와 사립 고등학교 3개교이다.

2020년 이후에는 초등학교 1개교에서 수영 팀을, 여중 1개교에서 육상 팀을, 고등학교

4곳에서 볼링 1개 팀, 육상 1개 팀, 컬링 1개 팀, 핸드볼 1개 팀을 창단했으며 사립 고등학교 2곳을 제외하면 6개교는 모두 공립 초, 중, 고등학교이다.

제 4장. 연구방법

본 연구는 지역소멸시대를 바탕으로 학교 운동부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으며, 학교 운동부의 자세한 이야기를 담고자 연구 방법의 하나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질문지를 통해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인터뷰의 내용을 담아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총괄적으로 분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립하였다.

학교 운동부와 관련된 감독, 코치, 학생 등을 대상으로 지역소멸시대와 학교 운동부에 대한 연관성, 학교 운동부 과거와 현재에 달라진 부분 혹은 학교 운동부의 발전방향에 대한 생각 등을 묻고 답하며 인터뷰를 실시했다.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전라남도에서 재직 중인 학교 운동부의 교사(감독), 코치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재학 중인 운동부 학생들로 총 20명을 선정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학교 운동부의 투명한 이야기를 듣고자 학교 운동부와 관련되어 있는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학교 운동부 교사(감독)와 코치는 5명, 학생 20명으로 선정하였고 총인원은 25명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 대상자 모두 학교운동부의 경험을 갖고 있다.

연구 대상자들은 조작됨 없이 경험한 토대로 이야기를 전달하였다.

다음은 본 연구의 인터뷰 연구 대상자의 재직 중인 학교 운동부 종목은 표 2.와 같다.

표2. 인터뷰 연구 대상자 및 종목

연구 대상자	총...명 전라남도 교사(감독), 코치, 학생
학교 운동부	- 개인 종목: 사이클, 사격, 레슬링 등 - 단체 종목: 하키, 농구 등

2. 조사 도구

본 연구는 학교 운동부의 자세한 이야기를 담고자 질문지를 활용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의 내용을 담아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자료수집과 인터뷰 내용을 총괄적으로 분석하였다.

3. 자료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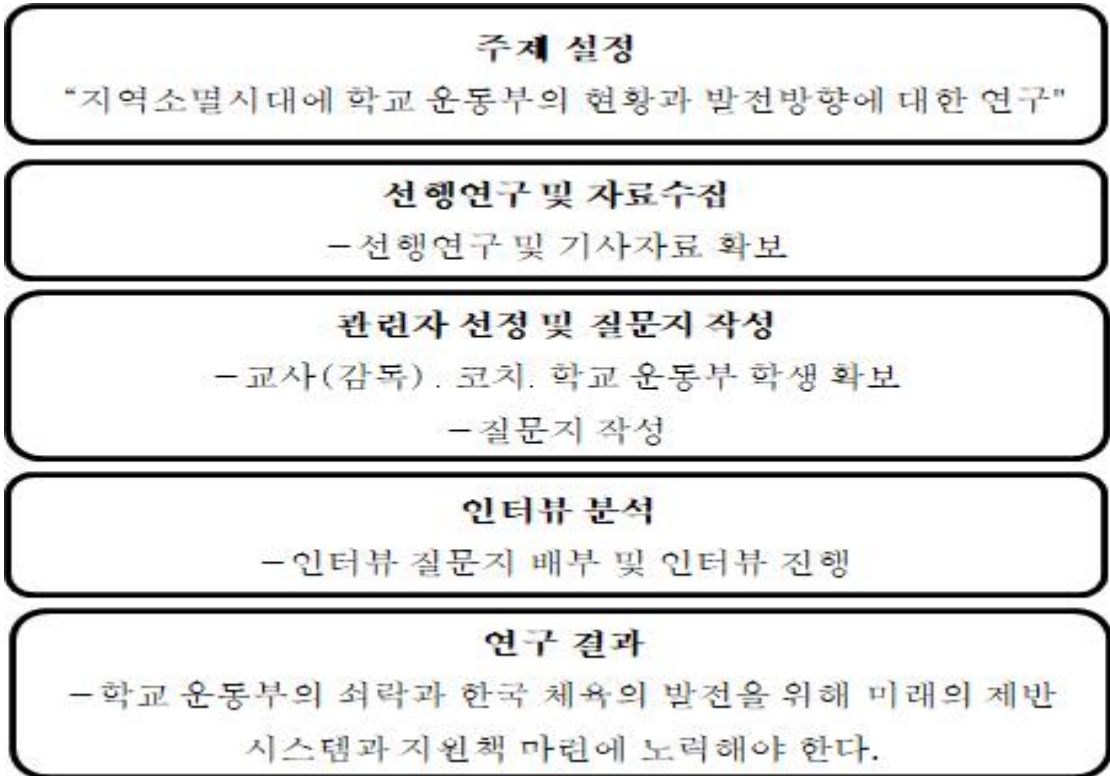
본 연구를 위한 인구 통계와 학교 운동부, 학령인구 변화 추세 자료는 통계청, 전라남도 교육청과 전남도, 전남도의회, 시군 등에서 집계한 관련 내용을 취합해 분석했으며, 학교 운동부와 관련해 일부 확보하지 못한 사례들은 공개된 사실을 내용에 포함했다.

다른 지역의 사례나 통계 등은 다양한 언론 보도를 분석해 연구 과제에 맞게 참조하고 국내외 사례나 학교 운동부와 관련된 각종 문헌과 선행연구를 수집해 활용하였고 관련 기사들을 확보했다. 인터뷰는 관련된 대상을 선정한 뒤 진행했다. 인터뷰 진행 전에 논문의 목적과 방향성을 설명하고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사전 약속과 면담을 통해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인터뷰는 연구 대상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담았다.

본 논문의 연구 순서는 다음 그림 6. 과 같다.

그림 6. 연구 순서



4. 자료 분석

인구 감소와 학령인구의 변화, 이에 따른 학교 운동부의 관계분석을 살펴보기 위해 문헌을 통한 고찰, 언론 보도의 분석, 선행 연구들의 해석과 내용 분석 방법 등을 토대로 수행했다.

5장. 학교 운동부의 발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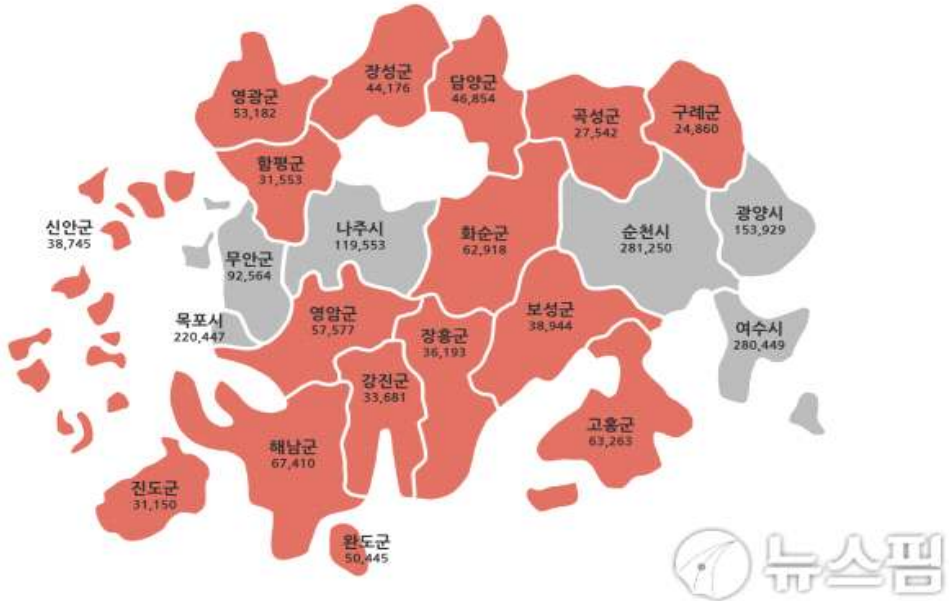
학교 운동부는 오랜 역사만큼 지나온 시기마다 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었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국가 체육 발전의 뿌리 역할을 수행하며 많은 역할을 해왔다. 엘리트 스포츠 찬반 여부 등 굵어진 사회적 논쟁과 합의, 크고 작은 위기 등을 극복하면서 학교 운동부는 대한민국 체육의 순기능을 담당해 왔다는 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인구 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라는 현재의 상황은 지금까지 보고 느끼고 체험했던 위기와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장벽으로 다가왔다. 이 같은 장벽을 뛰어넘고 학교 운동부의 희망찬 미래를 찾기 위한 해법을 탐색의 한 방법으로 전남지역 학교 운동부와 인구 감소의 상관성을 살펴본 결과 매우 높은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직면한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 보고자 논의를 하였으며, 언론 보도와 전문가 진단, 관련 자료, 선행연구들과의 비교를 통해 올바른 분석과 진단, 해석을 하고자 했다.

1. 인구 감소 추세와 전남지역의 영향

최근 20대~30대까지의 비율보다 65세 이상의 비율이 점차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고령화 사회로 이어졌고, 지역에서부터 수도권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들이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고령화도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자료들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전라남도 지역과 경상북도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역소멸의 피해가 1순위로 선택되었다. 전남지역 중에서 총 16곳이 사라진다고 예상하였으며 전반적으로 평균 이상이라고 보며, 한국에서 지역소멸 중 가장 심각한 곳이라고 본다.

그림 7. 전남 인구감소 지역(자료: 뉴스핌)

■ 전남 인구감소 지역 (16곳)



전남은 농어촌 지역을 다수 포함한 22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화와 더불어 대도시로 빠져나간 유출 입구 급증여과가 가시기 전에 저출생 시대를 맞닥뜨리면서 1986년 284만 명이었던 전남의 인구는 2022년에는 181만 명까지 떨어졌다. 인구가 줄면서 6세부터 21세까지인 학령인구도 크게 줄었다.

농어촌이 산재한 전남지역의 학생 수는 1981년 120만 5,437명으로 최고점에 다다른 뒤 하락을 거듭해 2023년에는 19만 4,173명까지 떨어지면서 폐교가 속출하고, 전남지역 학생 운동부도 선수 확보 어려움 등의 이유로 1990년 이후 94개 초, 중, 고등학교에서 112개 종목의 운동부가 자취를 감췄다. 초등학교 28개교, 31개 종목, 중학교는 37개교, 43개 종목, 고등학교 29개교, 38개 종목의 운동부가 해체된 것이다.

전국으로 확대해서 보면 학령인구는 1980년 전국 1,440만 명이 분기점을 이룬 뒤 2023년에는 725만 9,000명까지 떨어졌다. 현재 추세라면 2025년에는 700만 명대가 깨지

고, 2030년에는 600만 명대도 붕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2023년에 만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전국에서 145곳에 이르고, 전국 초등학교 4곳 중 1곳 꼴로 신입생 10명 이하인 학교가 돼 버렸다.

전남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학생이 없어 휴교 중인 초등학교가 17곳, 유치원은 36곳으로 집계됐다. 2018년 이후 5년 동안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193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사라졌고 이 기간 전남이 34개교가 문을 닫아 전국에서 폐교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학령인구의 감소 현황은 전남지역 각 급 학교의 학생 수 변화를 보면 한눈으로 볼 수 있다. 전남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 수는 1960년대 중반 81만여 명, 1970년 1백2만여 명, 1973년에는 110만 명을 돌파했다. 조금씩 늘었던 학생 수는 1981년 120만 5,437명으로 최고에 이른 뒤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1981년 정점을 찍은 전남지역 학생 수는 1986년 1백5만여 명을 끝으로 1987년부터 1백만 명 시대가 마감되었다. 이후 1991년에는 60만 명대, 1993년에는 50만 명대가 무너졌고, 1998년에는 30만 명대로 추락했다. 2000년 대 들어서면서 30만 명의 시대로 내려오면서 전남지역 학생 수는 2022년에는 19만여 명으로 줄었다.

학생 수 120만 명이 넘었던 1981년과 비교하면 유치원생은 1만 5천여 명, 초등학생은 8만 6천여 명, 중학생은 4만 6천여 명, 고등학생은 4만 5천여 명이 감소했다. 인구 감소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농어촌 지역이 산재한 전남지역은 더욱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이와 같은 현상은 고스란히 학령인구 감소로 이어져 학교 규모 축소, 폐교 등의 문제와 함께 학교 운동부 운영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 인구 감소 위기 속의 전남지역 학교 운동부 현황과 변화

전국적인 인구 감소 추세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한 1980년대 이후 인구는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까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한국에서 지역소멸 중 가장 심각한 전남은 총 16곳이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다. 16곳에는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이 있으며 이곳에서의 학생 수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전남지역 학생 수도 1980년대 초 이후 추락하면서 2022년에는 19만 명대로 진입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급이 축소되고 신입생이 사라져 문을 닫는 전국의 폐교가 2,587곳 가운데 전남지역이 839곳으로 가장 많은 전체의 32.4%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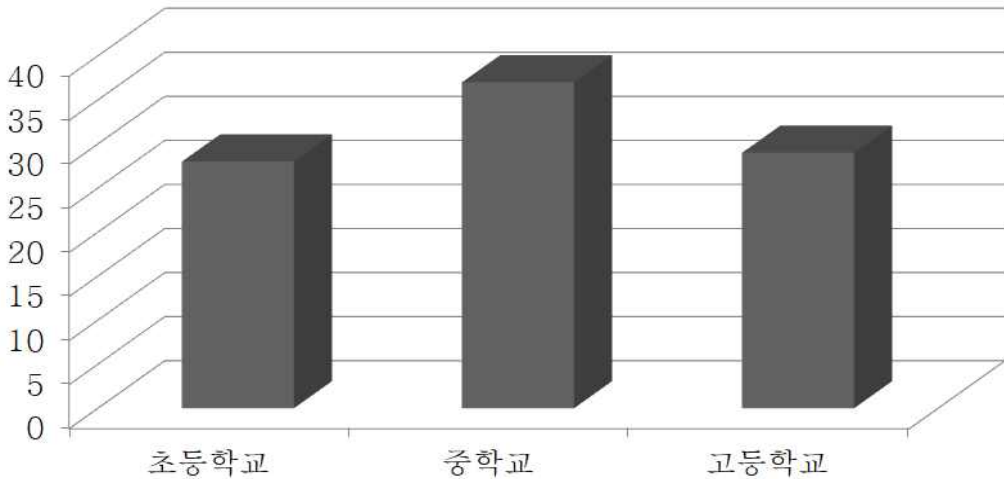
전남지역의 시군별로 폐교 현황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섬으로 이뤄진 신안군에서 84개 학교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고흥군과 완도군이 각각 76곳, 여수시 72곳, 해남군 53곳, 진도군 49곳, 나주시 40곳, 영광군 37곳, 곡성군 33곳, 함평군 33곳, 순천시 31곳, 무안군 27곳, 영암군 26곳, 장흥군 26곳, 장성군 25곳, 강진군 24곳, 담양군 19곳, 광양시 17곳, 구례군 12곳, 목포시 5곳 등이다. 농어촌 지역을 넘어 도시 지역까지 폐교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학교들이 문을 닫으면서 2023년 기준으로 전남지역에는 초등학교 429곳, 중학교 249곳, 고등학교 144곳 등 모두 821개의 초, 중, 고등학교가 남아 있고, 그나마 초등학교의 50% 이상은 전교생 60명 아래인 이른바 작은 학교들이다.

학생 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학생 운동부 운영도 어려워지면서 1990년대 이후 전남지역에서는 28개 초등학교에서 31개 종목, 37개 중학교에서는 43개 종목, 29개 고등학교에서는 38개 종목을 운동부가 해체됐다. 학교 운동부의 해체는 단순히 학교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의 상징으로서의 기능도 소멸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림 8. 전남지역 학교 운동부 해체 현황 1990년 이후(자료: 전남도 교육청)_재편집

전남지역 학교 운동부 해체 현황(1990년대 이후)



김규혁(2011)이 과거 우리나라 학교 운동부의 눈부신 활약과 성과는 학교의 상징이요 지역의 자랑이었으며 운동 경기장은 지역사회의 축제의 장이 되어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뿐만 아니라 장학생, 동문, 지역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화합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고 언급한 점은 학교 운동부가 갖고 있는 이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암울한 미래 예측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2023년 현재 전남지역에서는 전체 학교 4곳 중 한 곳 꼴인 192개 초, 중, 고등학교가 273개 종목의 학교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다. 1940년대에 창단된 공립 고등학교의 유도 종목 운동부가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고,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쳐 2000년대 이후까지 각 급 학교별 운동부 창단은 이어지고 있다. 1980년대에는 사립학교 운동부와 여중·여고 운동부가 출현하기 시작했고, 1990년대 이후에는 운동부 종목이 다양해지면서 복수의 운동부를 창단하는 학교가 다수 나왔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가장 많은 운동부 창단이 이뤄진 시기였다. 지역별, 학교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같은 종목의 학교 운동부가 다수 출범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3. 전남지역 학교 운동부 해체 현황

인구 감소 추세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끼치면서 전남 지역의 상황도 하향세를 피하지 못했다. 1960년 대 이후 늘어나던 전남지역 학생 수는 1981년 최고점을 찍었다. 120만 5,437명이었다. 그리고 전남지역 학령인구는 점점 줄어 학생 수 1백만 명 시대를 끝내고 1987년부터 학생 수가 74만 명대로 급속히 추락하기 시작했다. 한해 전보다 31만 명이 줄었다. 이 같은 추세는 더욱 가속화해 1991년에는 60만 명대가 1993년에는 50만 명대, 1998년에는 30만 명대로 추락했다. 2009년에는 20만 명대로 진입했고, 하락세는 멈추지 않아 2022년에는 학생 수가 19만 대까지 떨어졌다. 학령인구의 감소 속에 전남지역 학교 운동부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운동부 해체와 창단이 반복되고 있다. 지원 예산 부분이 나 시골에서 관리하는 것이 수월하다고 판단되는 축구나 야구 종목은 (일부) 새로 창단되기도 하지만 지역소멸시대로 인해 해체 수가 더 많다.....”(전남 △△중학교 학교 운동부 담당 체육교사)

전남도교육청이 실시한 2013년과 2021년의 학교 운동부 실태조사를 보면 8년 간 학생선수와 육성학교, 육성종목, 육성팀이 적게는 15.6%에서 많게는 29.5%까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3. 학교 운동부 실태조사

구분	2013년	2021년	감소비율
학생선수	3,777명	2,664명	29.5%
육성학교	249개교	204개교	18.1%
육성종목	109개	92개	15.6%
육성팀	467개	336개	28.1%

(학교 운동부 실태조사, 전남도교육청 학교체육기본방향.2022)

지난 1990년대 이후 해체된 전남지역 학교 운동부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축구 8개교, 수영 4개교, 육상 3개교, 야구 1개교 등 28개교 31개 종목, 중학교의 경우 축구 4개교, 수영 4개교, 정구 4개교, 핸드볼 3개교, 태권도 3개교 등 37개교 43개 종목, 고등학교는 축구 2개교, 수영 3개교, 탁구 3개교, 카누 3개교, 농구 3개교, 볼링 3개교 등 29개교 38개 종목을 학교 운동부가 사라졌다. 전남지역 초, 중, 고등학교를 통틀어 94개교, 112개 종목을 운동부가 해체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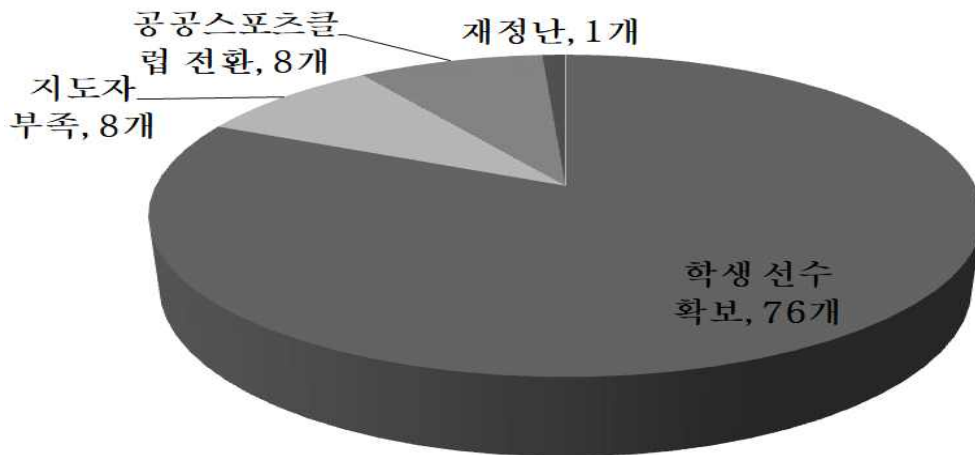
4. 전남지역 학교 운동부 해체 사유

학령인구가 정점을 찍은 1980년 대 후반을 지난 1990년 이후 해체된 전남지역 학교 운동부는 94개교, 112개 종목에 이른다. 각 급 학교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28개교 31개 종목, 중학교 37개교 43개 종목, 고등학교 29개교 38개 종목이다. 해체된 학교 운동부의 종목을 세분하면 축구 14개, 수영 11개, 탁구 7개, 육상 6개, 정구 6개, 테니스 6

개, 유도 6개, 핸드볼 5개, 펜싱 4개, 태권도 4개, 롤러 3개, 카누 3개, 농구 3개, 볼링 3개, 복싱 3개, 씨름 3개, 여자하키 2개, 검도 2개, 배드민턴 2개, 수구 1개, 양궁 1개, 럭비 1개, 사격 1개, 야구 1개, 사이클 1개, 인라인 1개, 근대 3종 1개, 역도 1개, 체조 1개, 레슬링 1개 팀이다. 94개 학교 가운데 사립학교가 23곳이고 나머지 공립 초, 중, 고등학교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운동 인원이 많은 축구팀이 가장 많이 해체되는 등 단체 종목의 해체가 눈에 띄고 기초 종목을 포함한 다양한 종목의 운동부가 해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해체된 전남지역 학교 운동부의 창단 연도를 살펴보면 1950년대는 1개, 1960년대는 없었고 1970년대는 2개, 1980년대는 13개, 1990년대는 35개, 2000년대는 42개, 2010년대는 15개, 2020년대는 1개 팀이며, 3개 운동부는 관련 자료가 없어 창단 연도가 확인되지 않았다. 길게는 40년 이상의 전통이 깊은 학교 운동부를 포함되었으며, 1990년대 이후 창단된 학교 운동부의 해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학교 운동부들의 해체 사유는 학생 선수 확보의 어려움 갖고 있는 팀은 76개이고 전체 67.8%를 차지했다. 그리고 지도자 부족의 영향을 미치는 곳은 8개 팀,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전환 등이 8개 팀으로 각각 7%이며, 재정난 1개 팀, 나머지의 학교 운동부는 자료가 없어 확인되지 않았다.

그림 9. 학교 운동부들의 해체 사유(자료: 전남도 교육청)_재편집



학생 선수 확보, 지도자 부족, 공공스포츠클럽 전환 그리고 재정난 중에서 학생 선수 확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다음은 지도자 부족과 공공스포츠클럽 전환이었다. 그만큼 학생 선수 확보가 1순위로 어렵다는 것이다. 1990년 이후에는 전남지역 학교 운동부의 3곳 중 2곳 꼴로 학생 선수 확보가 어렵다는 점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상으로 보인다. 앞으로 학생 선수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보인다.

5. 학교 운동부의 우려와 전망

학교 운동부는 단순한 학교 공간 안에 갇힌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에 걸쳐 누적되면서 대한민국 체육 기반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 급격하게 떨어진 출산율은 학령인구 감소를 가져온 지 오래되었고 학생 선수를 확보하지 못해 학교 운동부가 해체되는 일이 확산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건 학생 수 60명 이하의 이른바 작은 학교 비율이 특히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남 지역 초등학교의 절반 이상이 전교생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로, 초등학교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당연히 중학교와 고등학교 등 상급학교 학생 수 부족으로 동반할 수밖에 없다. 또한 초등학교에서 졸업한 뒤 원하는 중학교를 찾을 살고 있는 지역에 없을 경우가 종종 있으며 학생들은 다시 큰 도시로 옮기게 되는 것이다. 또한 운동을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은 자신이 하는 종목이 지역에 없으면 도시로 옮기게 될 수도 있고 혹은 운동을 포기하고 다른 진로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 자연스럽게 지역의 학교 수는 줄어들 것이고 훗날 학교들이 사라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본다. 이처럼 전남지역의 경우 학령인구가 5년 뒤인 2028년이면 현재와 비교해서 평균 30%~40%가량 더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쏟아지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입시 위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래에 불확실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운동부를 꺼

리는 분위기까지 확산하면서 농어촌은 물론 도시 학교까지 학생 선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아가 전남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이와 같은 하소연이 들리고 있으며 앞으로는 좋아지기보다는 악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보인다.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 야구부 지도자는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선수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초등학교 축구부 지도자 역시 “선수단을 꾸리기도 힘들다.”고 털어놓았다. 다수 학교에서 선수를 모집하는 클럽과 달리 학교 운동부는 재학생들로만 팀을 꾸려야하기 때문이다. 최소 인원을 채우기도 벅찬 학교들이 많다.(CBS노컷 뉴스, 2023)

17개 농어촌 군과 5 개시로 구성된 전남지역은 16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위기 소멸지역으로 꼽힐 만큼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하고, 이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학교 존폐 위기마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학생 선수 수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창단에 대한 기대보다는 유지되고 있는 학교 운동부들도 뾰족한 대책이 없으며 해체의 길로 점점 다가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가능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

학교 운동부의 위기는 지역, 종목에 크게 관계없이 번지고 있다. 젓줄 역할을 하는 학교 운동부의 감소는 초, 중, 고, 대학, 일반적으로 도미노처럼 연결되어 지역 체육과 국가 전체의 체육 역량에 영향을 끼칠 우려를 안고 있다. 학교 운동부의 부재와 상급 학교 졸업 뒤 실업팀의 부재로 우수 선수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 역시 또 다른 부작용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운동을 시작한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종목을 찾아서 진학하게 되는데 원하는 종목이 없는 경우들이 생긴다고 한다. 그로 인해서 학생들은 자신의 종목이 있는 학교를 찾아서 지역을 이동하기도 하고, 원하는 종목을 찾지 못하면 운동을 포기하고 다른 진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이 계속적으로 생긴다면 학생들은 다양한 진로의 경험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채 포기해야만 하고 다시 자신이 갖고 있는 장점과 어울리는 진로를 택해야 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진로를 포기하지 않도록 지역에도 다양한 스포

츠를 가진 학교 운동부가 필요해 보인다.

6. 학교 운동부의 해체 원인과 미래 발전 방향을 위한 고찰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전남지역 학교 운동부도 감소 추세를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의 실태조사결과 2013년과 8년 뒤인 2021년 학교 운동부의 통계는 변화 추세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학생선수와 육성학교, 육성종목, 육성팀이 적게는 15.6%에서 많게는 29.5%까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990년대 이후로 범위를 확대해 해체된 전남지역 학교 운동부 현황을 보면 전남지역 초, 중, 고등학교를 통틀어 94개교, 112개 종목의 운동부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종목을 세분화하면 축구 14개 팀을 포함해 단체 종목의 해체가 눈에 띄고 기초 종목을 포함한 다양한 종목의 운동부가 지역에 따라 큰 편차 없이 해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길게는 40년 이상 된 전통 깊은 학교 운동부도 예외가 없었고 공립과 사립 구분 없이 해체의 바람은 거셴다. 학교 운동부들의 해체 사유는 학생 선수 확보의 어려움이 76개 팀으로 전체 67.8%를 차지했고 지도자 부족이 8개 팀 그리고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전환 등이 8개 팀으로 각각 7%, 재정난 1개 팀이 뒤를 이었다. 1990년대 이후 해체된 전남지역 학교 운동부의 3곳 중 2곳 꼴로 학생 선수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 있었고 이는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운동부 운영이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운동부는 동등하게 줄어들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학교 운동부가 점차 사라지면서 한국 체육 기반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점은 단순하게 볼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건 학생 수 60명 이하의 이른바 작은 학교 비율이 특히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남지역 초등학교의 절반 이상이 전교생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여서 상급 학교 운동부 운영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학부모의 입장에서 학생들이 뚜렷한 미래를 원하기 때문에 운동보다는 학업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며, 이러한 이유들로 학교 운동부를 꺼리는 분위기까지 확산하면서 농어촌은 물론 도시 학교까지 학생 선수 수급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창단에 대한 기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학교 운동부들도 해체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현재의 상황처럼 흘러간다면 꺾줄 역할을 하던 학교 운동부의 쇠락은 지역과 국가 전체의 체육 역량에 영향을 끼칠 우려를 안고 있기에 마냥 손을 놓고 쳐다볼 수만은 없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지역과 국가가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김영성(2022)이 우리 정부가 학교 운동부 운영 및 육성 등에 관한 변화를 고려하고 있다면, 우선 현재 학교 운동부 활동 등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 수행과 요구하는 스포츠 활동이 무엇이고 어떤 환경이 필요한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뒤 정부가 지역의 운동부 활동에 관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운동부 활동 및 운영 등에 과한 종합적인 지침 내지 시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도 큰 틀에서 학교 운동부의 미래를 걱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영환(2019)이 소수학생들의 전유물이 되어있는 학교체육활동을 다수의 학생들의 참여로 확대하기 위해 일본교육과정 내에 안착돼 운영되고 있는 학교 운동부 활동과 관련한 제반 사항들을 벤치마킹해 한국 실정에 맞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학교체육(스포츠) 활동 제도의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점 역시 학교 운동부의 변화와 해법 마련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인구 절벽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학교 운동부의 생존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한국 체육의 미래와도 맞닿아 있다는 점으로 볼 수 있다. 전남지역 인구와 학령인구 변화, 학교 운동부 현황과 해체 원인 분석 등은 다가올 학교 운동부의 더 큰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의미를 갖고, 이런 변화와 현상을 통해 드러난 사실을 토대로 정책 부재와 따른 학교 운동부 위기를 극복할 활로와 해법을 찾는 노력에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전남지역 소재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교 운동부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 학생 선수로 활동하기 시작한 시기는 초등학교(2명) 보다 중학교(18명)로

많았다. 학교 운동부에 들어가 학생 선수를 하게 된 계기는 ‘운동이 좋아서’(8명)와 ‘가족, 코치 등 권유’(8명)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했다. 학교 운동부 소속 선수로서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냐는 질문에는 상급학교 진학(6명)과 다른 진로선택(3명), 미래의 불확실성(3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재로서는 큰 고민이 없다는 답변(7명)도 적지 않았다. 중등학교 졸업 뒤 지역 안에 상급 학교 운동부나 실업 팀이 없을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8명) 다른 진로를 찾아 운동을 아예 포기하겠다(12명)는 답변이 많았다. 학교 운동부의 위기와 관련한 물음에 대해서는 모르겠다(2명)는 의견을 제외하면 학교 운동부가 계속 유지될 것(9명)이라는 의견과 해체될 것(9명)이라는 의견이 반반으로 나뉘었다.

“.....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 운동부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아마도 미래에는 학생 선수 부족으로 해체될 것 같다.....”(전남 □□중학교 학교 운동부 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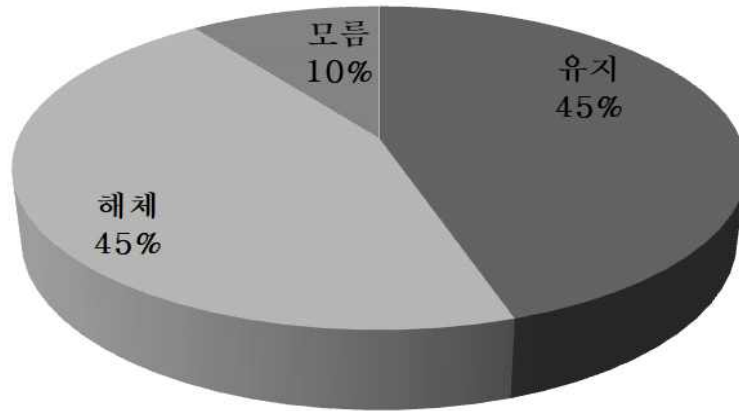
“..... 대부분의 학교 운동부가 비슷하겠지만 저희 학교도 학생이 부족해서 신입 선수를 채워서 운동부를 유지하기가 갈수록 힘들 것 같다.....”(전남 ○○고등학교 학교 운동부 선수)

“..... 어려운 부분이 보이지만 우리 학교 운동부의 미래와 운동을 통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어서 저는 후배들에게 학교 운동부를 권유하고 싶다.....”(전남 □□중학교 학교 운동부 선수)

“..... 후배들에게 학교 운동부를 권유하고 싶다. 왜냐하면 자신이 몰랐던 재능을 찾을 수 있고 실제로 운동을 하다보면 재미있기 때문이다.....”(전남 □□중학교 학교 운동부 선수)

그림 10. 학교 운동부에 대한 의견(학생)

학교 운동부에 대한 의견(학생)



학교 운동부와 관련된 교사와 감독 등 지도자들의 생각도 학생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전남지역 소재 중학교와 고등학교 감독(교사), 코치 5명을 인터뷰한 결과 모두 지역소멸시대와 폐교 현황의 연관성이 있다(5명)고 답했다.

지역소멸 위기는 더욱 가속화해 학생 수 감소,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 심화, 지역 학교 운동부 감소가 불가피할 것(5명)으로 내다봤다. 학교 운동부의 장점으로 학교와 지역 홍보(5명) 효과를 꼽았으며, 학생들의 건강성 보장과 활기를 높이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학교 운동부 가입을 추천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모두가 그렇다(5명)라고 답했고, 다양한 경험과 건강한 성장을 이유로 꼽았다. 학교 운동부가 사라진 후에 생기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진로 선택의 다양성 저해(3명)와 자긍심의 요인 사라지는 것(2명)이라고 응답했다. 물론 코치 등 지도자에게는 일자리 상실로 이어져 지역 체육의 위기를 부추기게 될 것(5명)이라고 입을 모았다.

“..... 상급학교 진학이나 실업팀 진로 등 미래의 불확실성이다.....”(전남 □□중학교 학교 운동부 선수)

“..... 학생들이 진로 선택 감소와 적응하는 시간이 걸리게 된다.....”(전남 ○○고등학교 학교 운동부 코치)

“..... 학교 운동부가 사라지게 된다면 학생들에게 위기가 닥치게 되며, 운동을 하려는 학생들이 전문학교(체육고등학교 등)로 이동해야 한다.....”(전남 ○○고등학교 학교 운동부 감독)

학교 운동부의 달라진 부분에 대한 의견은 예전과 다르게 체계화되었고, 스포츠에 관심이 많아져 지원하는 곳이 늘어나며, 학생중심으로 훈련이 이루어지고, 수업을 필수로 하여 공부시간을 채운 후 운동을 하여 학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학교 운동부의 재설치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5명이고, 그 이유는 소수인원이라도 진행하여 학교 운동부의 폐지를 막아야 한다고 했고, 학생들의 직업화 연계성을 두어서 직업에 대한 불안정을 없애주어야 했으며, 학교 운동부로 인해서 학생들의 건강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 운동부의 발전방향의 의견은 우수 지도자 양성프로그램 운영과 학교 체육과 지역 실업팀 연계 육성으로 지역 활성화 중시, 학교 체육과 생활체육의 연계프로그램의 부족함을 채워내야 한다고 했으며, 정부정책지원, 학교 운동부의 미래 제반 시스템, 기숙사 활성화하여 운동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렇게 학생들의 인터뷰보다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으며 현재 학교 운동부와 연관된 감독과 코치의 의견으로는 학교 운동부의 지역소멸과 연관이 있으며 발전방향에도 부족한 부분들을 볼 수 있었다.

강양원·유경재·이대웅·조현철·김현륜·신동현·유성완(2022)은 외부요인에 의한 비자발적 지방 운동부 해체는 스포츠 참여 중단으로 인한 선수 개인의 진로와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주거·의료·문화·일자리 등 기본 생활 여건과 삶의 질 수준에 대한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운동부와 관련된 교육에서 마저도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역시 학교 운동부가 점차 사라지면서 한 지역 안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다.

“..... 정부정책지원과 우수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학교 체육과 생활체육의 연계 프로그램은 특히 비인기 종목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고 싶은 종목이 없으면 학생이 지역을 이동해야하기 때문에 생활체육의 연계 프로그램은 필요하다.....”(전남 ○○고등학교 학교 운동부 감독)

“..... 정부정책지원을 더 반영해야하며, 학교 체육과 지역 실업팀 연계 육성, 학교 체육과 생활체육의 연계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본다. 지금도 학교 체육과 생활체육의 연계 프로그램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미미하여 보완해야 한다고 느낀다. 또한 한곳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숙사를 설치하여 외부유출을 줄여야한다고 생각한다.....”(전남 △△중학교 학교 운동부 담당 체육교사)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지역사회, 교육당국, 체육계, 주민 등이 머리를 맞대어 학교 운동부의 미래를 위한 제반 시스템과 지원책 마련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1개의 학교에 1개의 학교 운동부 육성지원, 우수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운영, 학교 체육과 지역 실업팀 연계 육성, 학교 체육과 생활 체육 연계를 통한 학교 운동 시설의 지역 주민 활용 방안 확대 등 다각도의 논의와 해법의 마련이 필요하다.

제 6장. 결론

1. 요약 및 결론

학교 운동부는 오랜 역사만큼 한국 체육 발전의 뿌리 역할을 수행해 왔다. 본 연구는 인구 감소에 따른 전남지역의 학령인구 변화 속에 학교 운동부의 현황과 변천사를 각급 학교별, 연도별, 종목별, 공·사립 등으로 세부적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인구 감소와 학령인구, 그리고 학교 운동부와와의 관계성을 살피는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 학교 운동부의 미래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문헌 고찰 방법, 인터뷰, 언론 기사 분석, 역사적 해석과 기술 방법을 바탕으로 인구변화와 학령인구의 인과 관계 그리고 전남지역 학교 운동부 현황과 변화, 학교 운동부의 감소와 발전 방향을 고찰하는 방식으로 인구변화가 실제로 학령인구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고 또 줄어든 학령인구는 학교 운동부에 어떤 원인을 제공했는지 등을 연구 과제로 삼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됐다.

한국의 인구 감소 추세가 시작된 1980년 이후에는 전국의 학령인구도 하향세로 전환했고, 대부분 농어촌 지역으로 구성된 전남지역의 하락 속도가 더욱 빨리 진행됐음을 알 수 있었다. 1986년 284만 명이었던 전남의 인구는 2022년에는 181만 명까지 떨어졌다.

인구가 줄면서 120만 명대로 정점을 찍었고 전남지역 학생 수는 1987년 74만 명대로 감소했으며 2022년에는 19만 8,262명으로 20만 명 선마저 깨졌다. 아이 울음소리가 끊겼다는 농어촌 마을들이 속출하고 있고 신입생이 없는 학교들이 속속 문을 닫았다. 2018년 이후에는 5년 동안에만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193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사라졌고, 이 기간 전남이 34개교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차지를 하였다.

1981년 120만 명이 넘던 전남지역 학생 수가 2022년 이후 19만 명대로 떨어지면서 학교 운동부에도 위기가 찾아들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전남지역 94개교 112개 종목

의 학교 운동부가 해체되었다. 94개 학교 가운데 사립학교가 23곳이고 나머지 공립학교로 나타났다. 초등학교가 28개교, 31개 종목에 이르고 중학교는 37개교, 43개 종목의 운동부가 없어졌으며, 고등학교는 29개교, 38개 종목의 운동부가 사라졌다.

인기 종목 또는 비인기 종목에 크게 관계없이 다양한 종목의 학교 운동부가 해체라는 아픔을 겪고 있다. 1990년 이후에는 해체된 94개교, 121개 종목의 전남지역 학교 운동부 해체 원인을 보면 학생 선수 확보의 어려움이 전체 67.9%를 차지했고 지도자 부족과 공공스포츠클럽 전환 등이 각각 7%, 재정난이 뒤를 이었다. 1990년 이후에 해체된 전남지역 학교 운동부의 3곳 중 2곳 꼴로 학생 선수 확보가 어려웠다는 점은 학령인구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상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남지역 학교 운동부 소속 선수와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지역 소멸 시대 학교 운동부의 위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했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학교 운동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정부정책지원, 학교 운동부의 미래 제반 시스템, 운동부 육성 지원, 우수 지도자 양성프로그램 운영, 학교 체육과 지역 실업팀 연계육성으로 지역 활성화하고 학교 체육과 생활체육의 연계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학교 운동부 위기는 지역의 위기로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한국 체육의 위기라고도 볼 수 있다. 학생 수가 60명 이하의 이른바 ‘작은 학교’가 즐비한 상황에서 전망은 더욱 어두울 수밖에 없다.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의 학교 운동부의 쇠락과 부재는 한국 체육의 근간을 통째로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토대로 정부와 지역사회, 교육당국, 체육계, 주민 등이 머리를 맞대어 학교 운동부의 미래를 위한 제반 시스템과 지원책 마련에 함께 노력하여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2. 재언

인구 감소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운동부의 현황과 변천사를 각급 학교별, 연도별, 종목별, 공·사립 등으로 세부적으로 나눠 살펴보고 인구 감소와 학령인구, 그리고 학교 운동부와의 관계성을 살피는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 학교 운동부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인구변화와 학령인구의 인과 관계와 전남지역 학교 운동부의 현황과 변화 그리고 학교 운동부의 감소, 발전 방향을 고찰하는 방식으로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버텨온 학교 운동부는 한국 체육 발전의 뿌리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처럼 한국 스포츠의 젓줄 역할을 해온 학교 운동부가 인구 절벽 시대를 맞아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그러나 전남지역 학교 운동부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다른 시도 학교 운동부의 모든 상황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전국 학교 운동부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1 학교 1개 운동부 육성 지원, 우수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운영, 전문스포츠 클럽 활성화, 학교 체육과 지역 실업팀 연계 육성, 학교 체육과 생활 체육의 연계 등 다각도에서 논의와 해법의 마련이 필요하다. 국내외 성공적인 학교 운동부 사례 연구를 통해 위기에 놓인 학교 운동부의 활로 모색과 미래를 위한 생산적인 자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CBS노컷뉴스(2023.07). '금쪽같은 내 새끼' 초저출생에 韓 체육 학원 분위기까지 달라졌다.
- CBS노컷뉴스(2023.07). "운동할 아이들이 없어요." 韓 체육, 저출산에 존립 기반마저 흔들린다.
- CBS노컷뉴스(2023.07). 韓 체육이 풀어야 할 숙제는? 저출산 문제가 전부는 아니다.
- MBC뉴스투데이(2023.01). "신입생이 없어요"... 학교도 문 닫는다.
- 강양원 등(2022). 전라북도 학교 운동부의 전문스포츠클럽 전환 사례 연구. 한국체육과학회.
- 경향신문(2023.05). 연세대학교 박명립 교수 기고문 극단적 선택과 저출산(하).
- 김규혁(2011). 강원도 지역 학교 운동부의 형성과 변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김승재, 이지형(2016). 학교 운동부지도자의 직업불안정성이 직무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교육학회.
- 김영성(2022). 학교스포츠평책, 운동부 활동의 위기와 개혁: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체육과학회.
- 뉴스 1(2023.06). [오종운의 입시 컨설팅]. 올해 고3 40만 명대 무너졌다... 입시 영향은.
- 뉴스프리존(2023.05). [학령인구 감소 '정적규모 학교' 육성에서 답을 찾다] 학령인구 절벽... 지방부터 무너진다.
- 뉴스핌(2023.04). [헬로로컬] 소멸위기 지역을 가다(1) 현황과 실태.
- 뉴스핌(2023.05). [헬로로컬] 소멸위기 지역을 가다(6) 전라남도.
- 뉴시스(2023.01). 학생선수 '결석허용' 최대 4배 늘린다... "체육계 의견 반영".
- 뉴시스(2023.06). "전북 학생 선수 육성 위한 단계적·체계적 정책 시급하다".
- 매일경제(2022.06). 저출산에 명문 야구부도 선수 달랑 9명... "선수교체 못해요".
- 무등일보 사설(2021.12). 전남 초등부 학교스포츠클럽 전환을 환영한다.
- 서영환, 정영미(2019). 일본의 학교 운동부활동의 성립 과정과 교육적 효과 및 만족도 분석. 한국발육발달학회.
- 세계일보(2023.07). 2년 연속 인구 줄어든 한국... 유소년 600만 명대 첫 붕괴.
- 이대형(2012). 교육의 장으로서 학교 운동부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탐색. 한국체육교육학회.

전남도교육청(2022). 한국체육 기본방향.

전남도교육청(2023). 전남지역 초중등학교 운동부 현황 자료.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2023). 전남도 도정질의 '전남 체육 종목 선수 유출 현황 및 대책'.

지방교육재정 알리미(2023.03). 시·도별 폐교보유 현황.

한겨레(2023.08). '통합적 사고' 앞세웠던 수능 30년... 공부의 목적을 잊었다.